

29만명 광주문화 절정을 맛보다



4월 개막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8개월간 여정을 마치고 마무리됐다. 내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더욱 확대 운영된다. 사진은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플래시몹 '오매댄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8개월 대장정 마무리

504팀 공연 무대...뚝자리 파티 '광장문화' 새장 열어 내년 예산 20억원으로 늘리고 문화전당과 공동 개최

올 한해 금남로 일대는 흥겨움으로 가득 찼다. 지난 4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개막하며 금남로, 5·18민주광장 등에서 다채로운 공연·체험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시민들은 차 없는 금남로 거리를 활보하며 맛과 멋과 흥을 즐기며 유쾌한 문화반란에 동참했다. 지난 8개월간 504개 공연팀(5762명)이 무대에 올랐다. 또 미술·음악·공예 등 654개팀(2376명)이 체험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총 관람객은 29만이다.

'광주 문화 절정체험 오매! 광주'를 주제로 열렸던 페스티벌이 발길을 끌며 모았던 요인은 정기적 개최, 높은 접근성, 시선을 붙잡는 프로그램 등이다.

지난 4월23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주 둘째주 토요일은 5·18광장에서 버스킹 공연, 넷째주는 금남로 일대에서 공연, 체험·참여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시민들은 클래식, 교향악단, 무용, 마임, 댄스, 마술 등 곳곳에서 펼쳐진 마음에 드는 공연을 골라볼 수 있었다. 또한 주변 상가들이 행사날에는 할인 이벤트를 열어 쇼핑하는 즐거움을 더했다.

가장 의미있었던 점은 관객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던 지역팀들에게 무대를 내어준 것이다. '환백당 사랑이야기', '무등애가', '비(飛) 항공 등 자체 창작공연 뿐 아니라 '오매송', '오매댄스'를 제작해 시민과 함께했다. 또한 통기타·밴드·보컬 등 버스킹팀 뿐 아니라 버블쇼, 마살리츠, 뱀에로 댄스 등 신선한 공연팀들을 초청하며 볼거리를 풍성하게 했다.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각 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임방울대회 수상자 공연,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 영호남교류청소년음악회, 달빛통명포크콘서트 등이 금남로 무대에 섰다. 실내에서만 공연했던 팀들은 페스티벌을 계기로 밖으로 나와 시민과 소통할 수 있었다.

'광장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지난 6월 기획했던 '뚝자리 파티'가 대표적이다. 주최측이 광장 분수대 주위에 마련한 뚝자리 100여개는 순식간에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선점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를 계기로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곳곳에서 '뚝자리족'들이 보였다.

아쉬웠던 점은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음에도 페스티벌을 대표할 수 있는 공연팀 육성이 미흡했다. 매 행사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기투표를 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람객 반응을 분석해 인기팀을 선정하고 알릴 구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 지역 공연팀이 페스티벌을 계기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타지역에 소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시는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운영시스템도 개편해 페스티벌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사무국을 새롭게 꾸려 문화전당 공동개최하는 'ACC-광주 인터내셔널 프린지페스티벌'과 기존 행사를 진행하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올해 페스티벌은 금남로 일대를 활성화시켰지만 막상 문화전당까지는 관람객 발길이 미치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문화전당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 중 일주일 동안 '인터내셔널 프린지페스티벌'을 함께 연다.

문화전당과 원활한 협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문화재단에 행사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다. 올해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주관사 공모 보다는 문화재단 산하에 사무국을 새롭게 꾸리고 사무국장과 총감독 등 인력 배치를 구상하고 있다. 4억3500만원이었던 예산은 2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단 기존 인력으로는 페스티벌 운영에 우러가 되는 만큼 향후 광주시, 문화재단, 문화전당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내일 프린지페스티벌 취소

오는 26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대규모 촛불집회로 인해 취소되며 올해 일정이 마무리됐다. 마지막 행사(26일)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작품상 시상식은 12월 1일(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하2층 컨퍼런스홀로 연기된다. 문의 062-224-0323.

황항운 '명옥헌' 출판기념전

30일까지 갤러리D...6년 사진 기록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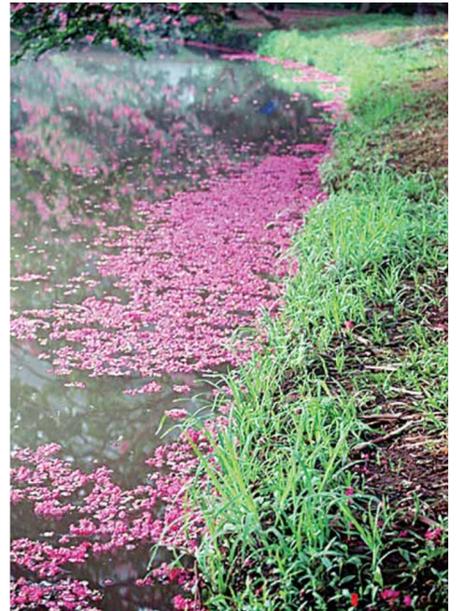
황항운 작가가 지난 6년간 명옥헌의 아름다움을 담아 촬영한 작품들을 모아 출간한 '명옥헌' 출판기념전을 30일까지 갤러리D에서 연다.

"명옥헌은 예술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명옥헌 사계와 전통 '주련'(柱聯), 당호, 편액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석산고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황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39년 교편생활을 정리하는 정년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 2005년 명옥헌 정자 기동에 붙은 주련을 읽고 영감을 받아 풍경을 기록했다. 평소 수량이 적은 계곡에 풍부한 물이 흐르기를 수년째 기다리기도 했다.

작품 '명옥헌 여름' 시리즈는 지난 7월 폭우가 내린 뒤 만족할 만한 풍경을 만난 작가가 촬영한 사진들이다. 정원 연못에 비친 배롱나무꽃, 물방울을 머금은 꽃들을 볼 수 있다.

황씨는 조선대 국어교육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김제향교 윤주남 전교와 윤용대 사진작가에게 한학과 사진 지도를 받았다. 문학광장 신인문학상(2010)을 수상했으며 명양학연구소 소장,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22-8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후성 첼로 독주회

28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이후성 첼로 독주회가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슈만의 '판타지 작품 73', 바흐의 '첼로 조곡 2번 d단조',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소나타 d단조'를 들려준다.

조선대 음악교육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독일 하노버 국립대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 만점으로 디플롬을 취득했고 동대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최고 연주자 과정과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크로스 챔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우노아니모, 바로크 솔리스트 등 다양한 실내악 연주와 함께 광주대에서 지휘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박재연 조선대 교수가 맡는다.

25일(오후 7시30분)에는 목포 우리아트홀에서도 연주회가 열린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4301-192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열혈지구 '다시 한번 커튼콜' 공연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문화집단 열혈지구(사진)는 26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다시 한번 커튼콜 (자·연출 전경화)' 공연을 선보인다.

'2016 흥(興)놀이 프로젝트 No 2. "나는 누구?!"(이하 '흥놀이')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워크숍이 이뤄졌으며, 시민들과 예술가의 협업으로 공연되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이다.

이번 공연에는 왕태교, 이경순, 오광숙, 박형자, 박선자, 윤향숙, 김미숙, 장양수, 채승기, 김미경, 전경화 씨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사전 전화예약 및 공연 당일 선착순 100명 입장 가능하다. 문의 010-9893-324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황영성·박석규·송용·박동인·박종수·신동연·박성현·전희진·정유태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 11(화)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1st Anniversary

제1회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ASIA CULTURE CENTER

2016.11.25

www.acc.go.kr 1899-5566